

# KIA 이의리, 리허설은 끝났다



KIA 이의리가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러진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했다.

퓨처스 등판 50구 소화 2이닝 4피안타 2볼넷 3탈삼진 1실점  
최고 구속 151km “난 크로우 대체선발...선발 경쟁서 이길 것”



KIA 타이거즈 이의리가 프로데뷔전을 치렀던 2021년 4월 8일을 되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이의리가 복귀를 위한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했다.

이의리는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러진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 선발로 출격했다.

4월 10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했던 이의리의 부상 후 첫 실전. 이의리는 이날 2이닝(50구) 4피안타 2볼넷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이의리의 최고 구속은 151km, 34개를 던진 직구 평균은 144km를 기록했다. 이의리는 슬라이더(9구·131~136km), 커브(7구·131~136km) 점검도 했다.

피칭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50구에서 등판을 마무리한 이의리는 이후 볼펜으로 이동해 21구를 추가로 던지면서 ‘이상 무’를 알렸다.

다시 마운드에 오른 이의리는 “긴장이 많이 됐다. 긴장을 많이 해서 내가 공 던지는 느낌이 아니었다. 포인팅도 모르겠고, 1회 마지막에 감을 잡았던 것 같다. 오랜만에 다른 팀을 상대로 던지니까 새롭기도 했다”며 “밸런스는 좋았다. 무리하면 안 되기도 하고 구속에 대한 것은 크게 없어서 살살 던지려다 보니까 템포가 느껴지는 등 타이밍에서 어긋나는 게 있었다”고 밝혔다.

추가 볼펜 피칭에 대해서는 “투구수가 많이 안 올라와 있어서 공 던지는 힘을 기르려고 일부러 더 던졌다.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던지면 팔이 더 잘 나오고, 힘 전달이 더 잘된다”며 “21개 정도 던졌는데, 경기에서 던진 것 보다 훨씬 좋았다. 혼자 볼펜에서 소리도 지르고 한국시리즈 하면서 던졌다”고 웃었다.

예정보다는 늦어진 실전, ‘완벽한 복귀’가 이의리와 KIA의 목표였다.

이의리는 “(부상 당한 경기에서) 공을 못 때렸다. 안 던져졌다. 내가 던지는 느낌이 아니었다”며 “1주일 쉬고 될 줄 알았는데 캐치볼 할 때는 괜찮았는데 피칭 때 팔이 안 좋았다. 던질 때 통증이 발생했으니 그 느낌을 지우는 게 중요했다”고 설명

했다. 프로 첫 시즌부터 팀의 선발 한 자리를 맡아 쉽지 않았던 이의리는 마운드에서 벗어나 자신의 야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이의리는 “아프고 나서 느낀 건데, 경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1군 첫 등판하던 날 ‘내가 1군에서 던진다고? 잘했다, 잘했다.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드디어 밭아보구나’ 이러면서 마운드에 올라갔다”며 “그게 아직도 기억난다. 작년에는 당연시하게 됐던 것 같다. 그때 생각을 까먹지 않으려고 한다. 올해는 조금 더 감사함을 느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해영이 형과도 자주 연락을 했다. 형이 실점하고 세이브를 하던 날 속상해 하길래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껴라. 형이 막아주니까 이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형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이 이야기를 해줬다. 형이 다음 경기에서 감사히 올라갔다고 했다”며 “아파서 못 던지니까 그게 힘들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던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점검을 끝낸 이의리는 ‘기대 반 걱정 반’ 1군 복귀를 기다린다.

이의리는 “빨리 가서 뛰고 싶기도 한데 팀이 1등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다. 너무 다 잘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다”며 “이제 나도 경쟁을 해야 한다. (황)동하가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인데 ‘대체 선발’이라는 말이 그렸다. 내가 일단 크로우 대체 선발이다. 경쟁하면서 다른 선발들을 이기겠다(웃음). 지금까지 다들 잘 달려왔다. 한 번씩 쉬어야 한다”고 복귀 후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함께 1위를 위해 달리고 있는 팬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이의리는 “오래 걸렸는데 1군 가서 긴장도 많이 될 것 같다. 그래도 팬분들께서 저를 안 잊어주셔서 감사하다. 2군 경기 많이 보러와 주신 것도 감사하다. 1군 경기 볼 때마다 팬들의 함성 소리가 컸다”며 “팬분들도 1등이라는 자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견디는 팬분들이 대단하다. 응원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날 것 같다. 가서 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39살 국가대표’ 호날두 ‘유로 2024’ 뚝다

포르투갈 대표 개인 통산 6번째 출전 ‘유럽축구 사상 최초’

1985년생의 노장이지만 여전히 ‘세기의 축구스타’로 꼽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알나스르)가 올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에도 포르투갈 대표로 나선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현지시간으로 다음 달 14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유로 2024에 나설 26명의 국가대표 최종 명단을 21일 발표했다.

후벵 디아스, 베르나르두 실바(이상 맨체스터 시티), 브루누 페르난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전성기를 구가하는 현역 선수들이 포함된 가운데 ‘39세’ 호날두도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호날두는 유로 2004를 시작으로 개인 통산 여섯 번째 유로 대회에 출전한다.

6차례나 유로 본선을 밟는 선수는 호날두가 유럽 축구 사상 처음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도 벌써 5차례 출전한 호날두는 메이저 대회인 월드컵과 유로만 따져도 11차례나 출격할 흔치 않은 사례로 축구사에 기록될 걸로 전망된다.

통산 206차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에 출전, 128골을 터뜨려 출전-득점 부문에서 역대 1위를 달리는 호날두는 유로 2024를 통해 자신의 기록을 계속 새로 쓸 기회를 받았다.

2022년 말 유럽 축구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로 향한 호날두는 올 시즌 리그 29경기에서 33골

을 폭발, 득점 선수를 달리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시즌 최다 골 기록은 2018-2019시즌 알데라자크 함달라흐가 달성한 34골로, 현재 호날두의 기록과 1골 차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호날두와 관련해 “클럽팀 41경기에 출전해 42골을 넣었다”며 이름값이 아닌 능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르투갈 대표팀에 돌아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정상급 미드필더로 꼽히는 토니 크로스(34·레알 마드리드)는 고국에서 열리는 유로 2024가 끝나는 대로 축구화를 벗겠다고 직접 밝혔다.

크로스는 21일 SNS를 통해 은퇴 계획을 알렸다. 그는 “스스로 적절한 시기를 골랐다”며 “내 목표는 내 경기력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서 경력을 끝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소속으로는 다음 달 초 예정된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도르트문트와 결승전이 크로스의 마지막 경기인 셈이다.

크로스는 2014년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 이후 10년간 한 팀에서만 뛰었다.

2021년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으나 독일이 ‘늑산 전자군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최근 고전하자 지난 2월 3년 만의 복귀를 결정했다.

넓은 시야와 뛰어난 패스 능력은 물론 창의적 플레이와 뛰어난 세트피스 소화 능력을 앞세워 독일의 ‘중원 사령관’으로 맹활약한 크로스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에 힘을 보탤 바 있다. 크로스는 독일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A매치 108경기(17골)를 소화했다.

/연합뉴스



## 손흥민, 팬들의 선택 받을까

‘EPL 올해의 팀’ 스트라이커 후보에

27일까지 투표...28일 공개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트넘·사진)이 팬들이 직접 고르는 특별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올해의 팀 스트라이커 부문에 후보로 등장했다.

EPL 사무국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에게 2023-2024시즌 베스트 11을 투표로 골라달라 안내하며 ‘팬 팀’(Fan Team)에 오를 후보 60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스트라이커 2명, 윙어 등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중앙 미드필더 2명, 센터백 2명, 풀백 2명, 골키퍼 1명이 최종 선정된다고 사무국은 밝혔다.

스트라이커 후보로 이름을 올린 10명 가운데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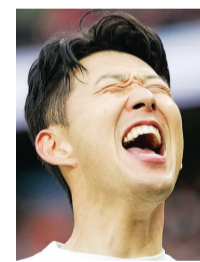
손흥민은 올 시즌 17골 10도움으로 시즌을 마쳤다. 리그 득점 순위에서는 8위, 도움 순위에서는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통산 3번째로 10골-10도움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앞서 웨인 루니, 무함마드 살라흐(이상 5회)를 비롯해 에리크 칸토나, 프랭크 램퍼드(이상 4회), 디디에 드로그바(3회)에 이르는 5명의 스타만 작성한 기록이다.

손흥민의 최대 경쟁자는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이다.

홀란은 27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을 차지했고, 소속팀 맨체스터 시티도 EPL 사상 최초로 4연패를 이루는 대업을 달성했다.

맨체스터 시티와 리그 최종전까지 우승 경쟁을 펼친 아스널의 전방을 책임지는 카이 하베



르츠, 리버풀의 다윈 누네스, 울버햄프턴에서 황희찬과 투톱을 이루는 마테우스 쿠냐 등 경쟁한 공격수들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득점 순위 3위 알렉산더 이삭(뉴캐슬·21골), 공동 4위 도미니 솔랑케(버밍엄)와 올리 왓킨스(애스턴 빌라·이상 19골), 요안 위사(브렌트퍼드), 크리스 우드(노팅엄 포리스트)도 손흥민과 경쟁한다.

오는 27일까지 팬 투표가 진행되고, 최종 베스트 11은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EPL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할 수 있다.

이는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가 선정하는 시즌 베스트11과는 별개다.

2015년부터 EPL에서 뛴 손흥민은 지금까지 PFA 베스트 11에는 한 차례만 선정됐다.

2020-2021시즌 아시아 국제 선수로는 최초로 이 명단에 포함되는 영예를 누렸다. 하지만 정작 최고 활약을 보여준 2021-2022시즌에는 PFA 베스트 11에 선정되지 못하고 아쉬움을 삼켰다.

23골을 넣어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으나 EPL 최고 공격수 3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시 공격수 부문에는 살라흐와 함께 뛴 사디오 마네(당시 리버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현 알나스르)가 뽑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